

## S&P, 사우디 신용등급 상향조정

- Standard & Poor's Ratings Service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신용등급(Long-term Foreign Currency Sovereign Credit Rating)을 "A"에서 "A+"로 상향조정하고, 신용등급 전망을 "stable"로 조정하였음.
  
- S&P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는 2004년도말 기준 미화 920억불에서 2006년도 말 미화 2,200억불(경상계정 지불기준 23개월분에 상당)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 또한, 전년도말 WTO 가입 이후 사우디의 경제 운용 기조가 자유화와 대외 개방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, 경제다각화, 실업률 감소 노력 및 민간경제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, 이러한 제반 상황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  
- 아울러, S&P는 이라크와 이란 등 주변국의 정치상황이 호전될 경우 신용등급을 추가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, 반대로 주변국 정치상황이 악화되거나 정부의 재정구조 악화 및 외채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의 신용등급이 하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지난해 연말 **Moody's Investors Service**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(Foreign Currency Ratings)을 **Baa2**에서 **A3**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